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5월 14일(주일) 제1442호

11번째 캠퍼스 '영종온누리교회'



11번째 캠퍼스 '영종온누리교회' 전경.

5월 7일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및 헌당예배 드려 11만 영혼 구원하고, 열국의 영혼 선교하는 비전

11번째 온누리교회 캠퍼스 영종온누리교회가 창립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운남동 1709-3)에 있다. 지난 5월 7일(일)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및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리더십, 영종온누리교회 성도, 지역주민 및 교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및 헌당예배는 당회서기 홍성호 장로 대표기도, 더블레싱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전영환 회장(하남(주) 대표) 헌사, 감사패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목사는 "새 포도주는 발효과정에서 팽창하기 때

문에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는다"면서 "영종온누리교회가 새 포도주 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새 가죽부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전영환 회장은 "영종온누리교회가 거듭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육환 목사(영종온누리교회 담임)는 "130여 년 전 대한민국 선교가 시작된 인천에 열방을 향한 선교 비전센터로서 영종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면서 "영종도 지역교회들과 함께 11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래미 어린이(초5, 꿈이자라는땅)는 "드디어 영종온누리교회가 온전히 완성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면서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장기홍 성도는 "영종도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종온누리교회는 2019년 12월 전영환 회장의 재산 기부로 태동했다. 당시 전영환 회장은 "내 재산은 내 힘으로 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면서 100억 원을 기부했다. 영종온누리교회는 2021년 4월 착공감사예배를 드리고, 2022년 2월 상량식을 거쳐 2023년 5월 7일 창립예배를 드렸다<관련 기사 6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

5월 17~19일 서빙고 본당과 온라인(유튜브)

드디어 2023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이 막 오른다. 5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유튜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2023 온누리회복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와 아픔을 돌보고, 치유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위한 자리다. 정신건강 및 상담 전문가 8인이 요일별 주제에 따라 불

안한 감정과 정신적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돌봄과 치유 방법을 소개한다.

아직 온누리회복축제 참가신청하지 않은 성도들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5월 14일(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참여나 온라인 참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참여를 신청한 성도에게는 회복지역본

부에서 명찰과 교재, 유튜브 접속링크를 보내준다. 회비는 3만 원.

회복축제 참가자들은 집회 첫날(6월 17일) 접수데스크에서 등록 확인을 한 다음 교재와 명찰을 받고 입장하면 된다. 본당 입장은 9시 40분부터 가능하다. 탁아방(36개월~초등 3학년)도 운영한다. 장소는 본관 2층 꿈터다.

문의: 02-3215-3532

/ 정현주 기자



새로운 모바일 헌금 방법 도입

온누리교회가 새로운 모바일 헌금 방법을 도입한다.

온누리교회와 하나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도들이 쉽고 편리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모바일 헌금 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로운 모바일 헌금 방법은 스마



트폰으로 별도의 앱 없이 SMS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QR 코드를 활용한다. 새로운 모바일 헌금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회원가입을 하고 헌금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 헌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기도제목도 작성할 수 있다. 한 번에 5건까지 헌금할 수 있다. 이체 수수료는 없다. 헌금한 기록이 저장돼 다음 헌금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출금계좌가 하나은행인 경우에는 '회원가입/간편인증서 발급' 버튼을 누르고,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한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하고, 약관에 전체동의한 다음, 출금계좌와 계좌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출금계좌가 하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 가입할 때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출금계좌와 계좌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간편 비밀번호와 오픈뱅킹 비밀번호 두 가지를 입력 및 확인해야 한다. 문의: 02-3215-3202

양재온누리교회 주차 캠페인

양재온누리교회가 주차 캠페인을 한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교회 주차장 양보하기, 인근 주차장 활용하기, 예배 이후 바로 출차하기, 주차 시간 지키기, 장기주차 하지 않기 등을 실천한다. 주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양재역 환승주차장에서 교회까지 셔틀버스(오전 6시 30분~오후 4시 30분)를 운행한다. 또 예배 후 바로 출차하고, 주차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주일 교회 주차장은 2시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570-7430

5월 비전헌금 '군선교 후원'

5월 13일(토)과 14일(주일) 봉헌하는 5월 비전헌금은 '군선교'를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55만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 전국을 누비며 사역하고 있다. 올해는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상영, 문화선교, 일대일제자양육, 공동체 성경읽기, 데이빗 스쿨, 세례 및 전도집회, <생명의삶> 지원 등을 활발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던지는 질문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시작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시작을 아는 게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고난을 당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이르기 전에 포기하고 맙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했던 욕도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라는 질문을 파헤쳐 가면서 결국 이르게 된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욕이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네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네가 아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욥 38:2~6).

“빛의 근원지로 가는 길이 어디냐? 어둠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네가 그것들을 제자리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것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욥 38:19~20).

하나님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욕의 질문에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만물의 시작을 네 스스로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자신의 시작을 알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고난이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을 찾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실만 인식할 수 있고, 그 때부터만 알 수 있기에 자신의 시작을 스스로 능력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학적 사고나 과학적 연구로도 인간은 그 시작을 명백하게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모든 원리 자체가 창조에 의해 생겨난 이후 결과이므로 창조 그 자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광대함과 신비함은 과학이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만 그 시작의 이유와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 1:1~2

만족시켜주는 대답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시작하셨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1절).

성경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을 ‘창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창조’를 의미하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 ‘바라’라는 동사는 무(無)에서 유(有)의 창조로 이루어집니다. 이 동사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아싸’라는 단어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다른 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라’는 ‘create’라는 단어를 쓰고, ‘아싸’는 ‘make’라는 동사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만들다’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아차르’라는 동사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기존의 물질을 새롭게 조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장 먼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있던 어떤 존재나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단어를 씌으로써 이미 어떤 물질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지만, 이것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NIV도 ‘비어 있다(empty)’고 썼습니다. 무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을 설명할 때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는 표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자연발생으로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미 존재했던 어떤 물질로부터 우발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창조를 통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술가들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대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재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도 재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시고, 무로부터 창조하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완전한 자유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창조주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생물, 미생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초월적, 실제적 영역을 포함

모든 것이 시작된 태초(in the beginning)가 존재합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입니다. ‘태초에’라는 표현은 창조의 정확한 시간, 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가 구체적으로 몇 년 전에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시작이 있었다”, “그 시간의 출발이 있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역사 너머에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과 우리가 딛고 있는 흙이 있는 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모든 초월적 영역,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의 영역을 포함한 것을 ‘하늘과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초월적인 세계와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의 세계 모든 것의 창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때 그 ‘하늘’과 ‘땅’은 대기권의 하늘과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실재, 초월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오늘 삶 속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하늘과 땅’이 같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이어서 ‘곧’이라고 한 것은 해석입니다. 즉, 하늘과 땅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해석을 근거해서 <나케아 신경>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열매

“창조가 모든 사고와 행동의 출발이고, 기초가 될 때 자신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상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되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한 시점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2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2절에서는 땅에 집중합니다.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나오고, 2절에서는 하늘이 언급되지 않고 땅만 언급됩니다. 1절은 모든 것의 창조에 초점을 두었다면, 2절에서는 땅의 창조에 집중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가 지구 중심의 창조를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설명 이후 2절부터 땅의 창조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서술적인, 주제상의 순서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땅의 창조를 이뤄가는 과정을 설명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3절 이하에 오는 6일 창조가 어떻게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용을 채우시는 창조를 이루셨는지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3절을 시간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눈에 빠 집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성부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요 1:1-3).

여기서 ‘그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3절부터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골로새서〉 1장과 〈요한복음〉 1장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계셨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을 찾으신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존할 대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존할 대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존재하는 대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의 사랑, 성령 안에서 그 아들과 누리는 사랑, 그 사랑이 흘러넘쳐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대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 모든 것이라는 창조가 나 한 사람, 나같이 작은 존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증언, 선언 그리고 대답**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는 말씀은 창조주의 증언입니다. 창조의 유일한 목격자가 계십니다. 창조주 그분입니다. 모든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증언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은 창조주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창조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신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당연한 사실로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은 유물론을 배격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구별된 하나님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범신론을 배격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는 종교, 철학, 사상, 신에 대한 관념 등 모든 것과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는 말씀은 창조주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너는 지음 받은 존재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만 하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창조주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오랜 시간 우연히 존재했다고 하는 막연한 대답을 하면 막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피조물을 신격화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 창조주의 숨겨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피조물 자체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숭배를 가

리켜 ‘인간의 자기기만이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인간을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두 구절의 창조 기록을 자신의 증언, 선언, 대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만드실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된 것을 말씀하는데 단 한 절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만들어진 창조를 설명하는데 1장의 30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얼마나 심오한지, 말씀이 단순한데 그 범위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런데 그 표현이 얼마나 간결하고, 과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합니까?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시작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입니다. 창조가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출발이고,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자신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상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되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전도서〉 12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미래를 꿈꾸라고 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된 미래를 가져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해체주의의 반기독교적 속성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 종래의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철학을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철학 이론)는 1960년대 후반 파리 고등사범 철학 교수였던 자크 데리다가 제안한 이후 서구 사상계와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론이다. 대부분의 현대 문학이나 철학 비평이론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해체주의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글 쓰기’와 ‘글 읽기’, 그리고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전 시대의 서구 형이상학 전통을 전반적으로 부정한다. 이러한 사조는 모더니즘의 이성적이며 틀에 짜인 모든 것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며 탈 이성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는다. 문학·철학 비평에서 시작돼 건축, 미술, 음악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 투영되어 기존의 효율과 명확성을 중요시하는 구조들을 해체하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통적 서구 형이상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말(speech)을 글(writing)보다 중요시한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다른 매개체 없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그 의도를 가장 진실하게 전달한다는 ‘진리의 현존(presence of truth)’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전달되는 이야기는 말로 전달되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진실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logos)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기독교의 복음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자크 데리다의 주장은 말 중심의 서구 전통 형이상학이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글’ 뿐 아니라 ‘말’에도 기표(표시 하는 바)와 기의(뜻 하는 바)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차연(differance)’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다. 이 단어는 자크 데리다 해체주의의 중심적 개념으로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을 합친 다름’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dif-

ference’와 같은 발음이지만 뜻은 다르며, 글에서는 둘의 다름을 구분할 수 있지만 말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말이 글보다 의미를 더 진실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해체주의적 비판은 대안이 없으면서 파괴적이기 때문에 사회를 결코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를 무정부 상태의 파멸로 몰아넣게 되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ference’와 같은 발음이지만 뜻은 다르며, 글에서는 둘의 다름을 구분할 수 있지만 말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말이 글보다 의미를 더 진실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말 중심주의’에 대한 자크 데리다의 도전은 전통 서구사상에 존재하던 이분법적 서열 계층구조의 기반을 흔들게 된다. 전통적 형이상학에서는 말과 글, 기표와 기의 등의 이분법적 계층구조를 설정해 전자를 중심에 놓고 후자는 전자에서 파생되어

그 의미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자크 데리다는 전자가 후자를 억압하는 상하구조를 해체한다. “말과 글은 상호보완적이지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중심적이지 않다. 모든 말과 글은 은유적이며, 기표와 기의를 구분할 수 없다. 또 어떤 단어는 잘못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과정에 삭제하거나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까지 해체주의를 이끈다.

롤랑 바르트는 1967년 그의 에세이 <작가의 죽음>에서 문학에서의 해체주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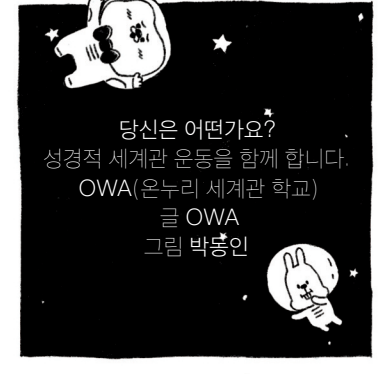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이 해체주의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해체주의가 서구문화 전반에 끼친 강력한 영향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가지는 반기독교적 속성 때문이다. 해체주의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리를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그것은 절대적이지도 최종적이지도 않다. 진리는 항상 상대적이며, ‘타자’인 ‘거짓’을 억압해서 얻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정하게 만든다.

또한 문장은 수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은유의 덩어리이며, 자유롭게 단어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문장에는 절대 진리가 없고 절대적인 의미도 없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문장은 항상 확정적이지 않으며 열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경을 의도적으로 오역하는 쿼어 신학이 태어났다.

문학적 해체주의가 정치적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해 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자본가 vs 노동자, 강자 vs 약자)에 대해서도 전자에 의한 후자의 억압구조를 비판하고 타파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해체주의적 비판은 대안이 없으면서 파괴적이기 때문에 사회를 결코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 결국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를 무정부 상태의 파멸로 몰아넣게 되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카툰으로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

OWA툰 no.01 (based on 22년 송구영신예배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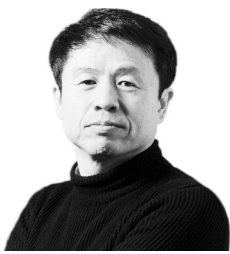
이단·사이비 OUT! 5. 여호와의증인, 안식교, 몰몬교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이단들

여호와의증인, 안식교, 몰몬교 대처법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파장이 거세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현혹하는 4개의 사이비 종교(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실체와 피해를 다뤘다. 다큐멘터리에 나오지 않은 다른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폐단으로 인한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 이에 온누리신문에서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연재 '이단·사이비 OUT!' 지면을 마련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점과 그 대처법을 설명한다. 다섯 번째 순서는 '여호와의증인', '안식교', '몰몬교' 다.

/ 편집자 주

탁지원 소장
(월간 현대종교 대표)

한국은 이단 수입 국이면서 수출국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의 이단들은 어떤 나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진출하고 있다. 오래전에는 외국계 이단들이 한국으로 몰려왔다. 압권은 북미의 이단들이다. '여호와의증인'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하 안식교)', 그리고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몰몬교)'가 그것이다. 이들 이단은 한국에 들어온 지 각각 110년과 120년, 70여 년 됐다. 오래전 이 땅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가짜는 진짜같이, 진짜는 가짜같이 사는 시대에 이제라도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며 살기를 바란다. 지면상의 이유로 이번에는 세 단체를 간단하게 정리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종교 홈페이지나 유튜브 '현대종교 TV'에서 도움받기를 바란다.

여호와의증인

여호와의증인은 정통 기독교가 믿는 주요 교리들을 대부분 부정한다. 또 수혈이나 병역을 거부하고, 국가 체제를 사탄으로 규정하는 등 사회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위치타 위성서책자협회'라고도 불리는 여호와의증인의 창교자는 찰스 테즈 릿셀이다. 주요 교리서는 <신세계번역판성경>이다.

릿셀은 1874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했으며, 1914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세상 권력이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시작할 거라고 주장했다. 2대 지도자인 루터포드도 1925년과 1975년 종말을 예언했지만 모두 불발로 끝났다. 예수를 피조물로 보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여호와의증인들만이 부활해 지상낙원을 통치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영혼 멸절설을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1912년 여호와의증인 선교사를 통해 포교가 시작되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가가호호 방문하며 포교한다. 주로 <파수대>와 <깨어라!> 등의 잡지를 나눠주며 기독교인들을 미혹한다. 407개 언어로 지원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포교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파주역 앞 여호와의증인 팸플릿, 안식교 창교자 엘렌 화이트(오른쪽) 부부, 몰몬교 템플 스퀘어 내 콘퍼런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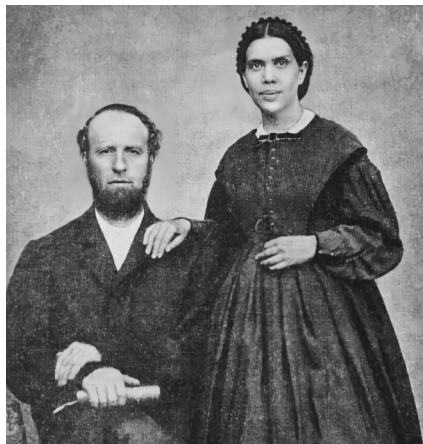
여호와의증인의 문제점은 국가 체제를 사탄으로 보고, 국가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를 거부하며, 의무교육과 국가 공무원이 되는 일도 거부한다. 공공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고, 병역의 무도 기피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수혈 거부로 인해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서 포교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게 포교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지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무료로 책자를 나눠주기에 호기심 어린 교리논쟁이 포교 기회로 다가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왕국회관을 중심으로 <파수대>와 <깨어라!> 등의 잡지로 다가오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 멀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딤후 3:10).

안식교

안식교의 창교자는 윌리엄 밀러, 엘렌 화이트다. 윌리엄 밀러는 1843년과 1844년 두 차례에 걸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추종자들은 엘렌 화이트의 계시를 따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식교는 엘렌 화이트를 선지자로 부르며, 그녀가 받은 계시를 성경의 권위에 견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안식교는 엘렌 화이트의 저술을 “지속적이고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에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 아울러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하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인간들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안식교는 토요일 안식일



준수 여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영혼 멸절설도 주장한다.

1904년 한국에 전래 된 안식교는 출판, 의료, 교육, 복지, 식품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출판사 '시조사'를 통해 <건강과 가정>, <교회지남> 등의 각종 교리서를 출판하고 있다. 삼육서울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육대학교를 비롯해 초중고 교육기관과 SDA영어학원을 운영한다. 웰빙과 관련한 뉴스타트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종말론과 관련해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성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교리적인 면에서는 기독교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삼육'이란 이름이 주로 들어간 다양한 사회기관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외국어)교육과 식품사업(삼육두유) 등 안식교 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그들의 활동을 주의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상구 박사 등 안식교 신자였던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한다.

몰몬교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에 의해 1830년 미국에서 설립됐다. 주요 교리서는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까지 4개의 경전이 존재한다. 몰몬교회만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하며 모든 인간은 하늘의



부모에게서 받은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창조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했고, 타락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지상천국을 건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몰몬교회에서 거행되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만 지상천국이 건설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에서 지상천국이 건설될 거라 주장한다.

포교 방법은 두 명씩 짝지어 다니는 20대 초반의 몰몬교 선교사들이 유창한 한국말로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준다면 접근한다. 교리와 관련해 가정 중심의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 본거지인 미국 서부지역에 교세가 집중되어 있다. 자신들이 “유일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몰몬교는 한국인들의 영어에 관한 관심을 최대한 이용한다. 거리에서 몰몬교 선교사들이 접근해오면 외국인과의 만남에 호기심이 있어도 피하는 게 유익하다. 무료 영어교육을 통해 미국 유학을 추천하기도 한다.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무료 영어공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여호와의증인, 안식교, 몰몬교 그리고 한국의 통일교까지를 보통 '세계 4대 이단'이라고 부른다. 신천지나 하나님의교회 같은 이단에 대해 알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단들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모두의 건투와 승리를 소망한다.

이단, 사이비 문의 및 제보
현대종교: 031-830-4488,
mrmad@hdjongkyo.co.kr

“온 세상 구원의 방주 되기를!”

영종온누리교회의 태동 그리고 비전



지난 5월 7일 영종온누리교회 기념 커팅식(위)과 창립 및 헌당예배(아래).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및 헌당예배를 2023년 5월 7일(일) 오후 3시에 드렸다. 영종온누리교회는 국내 11번째 캠퍼스다. 2012년 양지온누리교회가 창립한 지 11년 만에 세워졌다.

영종온누리교회는 대지면적 2020.8㎡, 건축면적 831.903㎡, 연면적 3222.862㎡ 5층(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2021년 4월 착공감사예배를 드리며 첫 삽을 떴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폐선박 일부를 교회 건축에 활용하고, 본당 내부를 백향목으로 꾸미는 등 친환경적이고 성경 친화적인 공사를 했다. 소모임실, 새가족실, 카페, 세미나실, 차세대 예배실, 본당(백향목체플), 옥상휴게공간, 교역자실 등 편의 시설이 있다.

영종온누리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벌써 성인

300명, 차세대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영종온누리교회가 태동하는데 전영환 회장(하남(주) 대표)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전영환 회장이 2019년 12월 100억 원을 온누리교회에 기부한 게 영종온누리교회의 태동이다. 당시 기증 약정식에서 전 회장은 “하나님께서 별게 해주신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다.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및 헌당예배에서도 전 회장은 “성도가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당연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며 “온누리교회처럼 건강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줘서 감사하다”고 헌사했다.

영종온누리교회는 건물보다 예배공동체가 먼저 시작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매주 공사현장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로 교회의 기초를 다졌

다. 임시예배처소에서부터 함께 기도한 조우성, 심효임 성도는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및 헌당예배를 드리며 감개무량함을 느꼈다.

“남편과 함께 온누리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나마 집에서 가까운 인천온누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우연히 영종도에 온누리교회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온누리교회가 영종도에도 세워진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우성, 심효임 성도는 영종온누리교회에서 드린 첫 예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부부가 처음 영종온누리교회를 찾았을 때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교역자와 사역자, 우리 부부 포함해서 4명뿐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조금씩 커지더니 창립 및 헌당예배를 드리기 몇 달 전에는 포화상태가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조우성, 심효임 성도가 영종온누리교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고백했다.

“교회 건물이 세워져 기쁩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살아 있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째 온누리교회 캠퍼스 창립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이어졌다. 박일구 선교사(TIM)는 “영종온누리교회가 이웃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와서 변하는 교회,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유형 장로(영종온누리교회 건축위원)는 “영종온누리교회가 온 세상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축복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영종온누리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새 마음, 새 부대, 새 은혜, 새 기쁨”

대한민국의 세계를 향한 관문인 영종도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방이 이 땅에 달려올 때 영종온누리교회가 두 팔 벌려서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곳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새 힘을 얻고, 만민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새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영종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 홍성호 장로(당회서기)

“이 땅의 구조선 되기를”

영종온누리교회 창립과 헌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종온누리교회가 이 땅의 구조선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에 선교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천온누리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함께 섬기게 되어서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동역하는 인천온누리교회와 영종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승수 목사(인천온누리교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건축물이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노아가 기공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배를 만들었고, 결국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건축가로서 노아의 방주를 교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많은 분이 좋아하는 교회가 된 것 같아 만족합니다. 노아의 방주 덕분에 인류가 구원을 얻었듯이, 영종온누리교회가 구원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신형철 교수(건축가, 신스랩아키텍처)

목회칼럼



도육환 목사
(영종온누리교회 담당)

립되기까지 많은 분의 자원과 헌신이 있었다. 우선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드린 전영환 회장님과 회장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기꺼이 유산의 몫을 포기한 가족들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 이제 훈 목사님에 의해서 계승 발전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영종도에서 새로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종온누리교회가 창

께 감사드립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믿음의 명문이 모습을 전영환 회장님 가정을 통해 볼 수 있음이 감사하다. 전 회장님이 심은 씨앗이 오늘 영종온누리교회라는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자신을 드러내며, 교회 개척에 자원함으로 헌신한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께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7개월 동안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공사현장에서 기도로 헌신하며 여기까지 달려와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영종온누리교회는 전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 형성된 교회다. 그 어떤 교회보다 거저 받은 것이 많고, 복이 많은 공동체다. 하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아름다운 예배공동체도 거저 받았다. 온누리교회 38년 영성과 비

하늘을 향한 새로운 항해(Sailing to Heaven)

전도 거저 받았다. 영종온누리교회는 은혜에 빛진 교회다. 은혜에 빛진 자답게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역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

영종도 앞바다는 130여 년 전 구한말 선교사들이 입국한 곳이다. 알렌, 언더우드, 로제타, 쉼핑(서서핑),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으로 들어오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영종도는 지정학적으로 관문(關門) 도시다. 관문 도시는 외부로부터 신문물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곳에 건강한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중보기도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

영종온누리교회가 130여년 전 복음의 첫걸음이 시작된 인천에 열방을 향한 선교 비전센

터로 자리매김하고, 열국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새로운 관문 교회로 드려지기를 소망한다. 100여 개 영종도 교회들과 함께 11만 영종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영종도에서 하늘을 향한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하며 출범한 영종온누리교회는 유람선의 승객이 아니라 구조선 승무원으로 승선했다. 세속화의 파도와 인본주의의 맞바람을 헤치고 나가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열방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한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부모님께 드린 가장 귀한 선물 ‘복음’

‘행복드림콘서트’ 148명 결신, 107명 세례 신청



2023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편지를 읽어주고, 축복하고 있다.

올해도 사랑하는 부모님께 가장 귀한 선물 ‘복음’을 드렸다. 지난 5월 8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6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형 찬양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이하 행복드림콘서트)가 막 올랐다. 부모와 자녀 378명(부모 227명, 자녀 151명)이 참석했다. 전도대상자인 부모 227명 중에서 148명(65.19%)이 결신카드를 작성했고, 107명(47.1%)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스펠 보컬 밴드 크룩스(CRUX)의 무대로 행복드림콘서트가 시작됐다. 이어서 세시봉 윤형주 장로가 등장했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연과 간증이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

물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면서 “어르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다음은 자녀들이 준비한 순서였다. 부모님께 정성껏 쓴 편지를 읽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부모님을 초청했다. “엄마 아빠와 천국에 함께 머물고 싶다”는 자녀들의 고백이 어떤 메시지보다 큰 울림을 줬다. 부모들이 결신카드를 작성하고, 세례를 신청하며, 자녀

들의 초청에 응답했다.

권정혜 성도(찬양공동체)는 행복드림콘서트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그녀는 천국을 떠올릴 때마다 엄마와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몹시 안타까웠다. 그 안타까움을 이번 행복드림콘서트에서 말끔히 해소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세례받기를 주저하던 어머니가 결신카드를 작성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다.

권정혜 성도는 “엄마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셨던 것 같다”면서 “엄마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임길자 어르신(권정혜 성도 어머니)은 “이 자리에 초대해준 딸에게 고마워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고규선 성도(양천공동체)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통영에서 모시고 왔다. 그리고 30여 년 간절히 드렸던 기도를 응답받았다. 고규선 성도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 지난해 어머니와 오빠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올

해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아버지를 전도했다.

고규선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복드림콘서트를 통해서 제가 30년 가까이 드렸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지석 어르신(고규선 성도 아버지)은 “정말 고맙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면서 “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다.

고모를 모시고 온 조카도 있었다. 정동우 형제(SNS청년부)는 부모님만큼 사랑하는 고모에게 복음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고모의 손을 꼭 잡고 행복드림콘서트에 왔다.

정동우 형제는 “새신자 눈높이에 맞춰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역팀 덕분에 고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고모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고모와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정정옥 어르신(정동우 형제 고모)은 “행복드림콘서트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조카와 함께 꼭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아들이 ‘감사’를 담아 부모님께

봄바람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좋은 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무거운 걸음을 내딛릴 때마다 두 분이 평생 일궈온 지난날을 자주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과 두려움, 유치원을 오가는 길에 대한 염려, 초등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훈장처럼 액자에 고이 수집하는 즐거움, 시작되는 중학생의 반항에 당혹스러운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닥쳐오는 IMF의 매서운 바람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철없이 덩치만 커져 버린 고등학생, 멀리 떨어져 대학생할 하는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주어야 할 시간, 사고를 당해 아파하며 신음하는 아들을 어찌할 줄 모르며 바라보는 미안함과 슬픔, 사회에 진입하려 고군분투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안쓰러움,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예쁜 여자를 데려와 놓고는 허죽 웃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웬지 모를 뿌듯함, 열심히 수고해서 키워 냈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지니 드는 서운함, 손주를 기대하는 마음과 걱정, 은퇴하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 할 또 다른 인생에 대한 불안함.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깊고 무거웠을까 감히 헤아려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고되고, 슬프고, 불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불행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여정의 초입에서 가능해보는 부모님의 지난 시간에는 감히 가능할 수 없는 눈물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두 형제가 가정을 꾸리고 새 생명을 태에 품어가며 새로운 꿈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로애락이 있었음을 다시 기억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이 땅에서의 인생과 작별을 고할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닌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득 담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글을 올립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 김규성 성도(이수공동체)

딸이 ‘사랑’을 담아 엄마께

엄마가 낳은 둘째 딸 재연이에요. 엄마가 나 태어났을 때 “딸이에요? 아들이예요?”라며 묻지 않고, “한 명 낳았어요? 두 명 낳았어요?”라고 물어봤다면요. 이렇게 튼튼하게 낳아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나는 이제야 철이 드나 봐요. 나의 믿음 생활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롭고 싱그럽게 피어납니다. 엄마, 나는 어머니의 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 아버지가 저와 식사하실 때 “너 얼굴 많이 좋아졌다”고 여러 번 말씀 하셨지요. 제가 행복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기쁨을 체험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덕분입니다. 엄마에게 참 좋은 가사의 찬

양을 선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신나고 힘나는 찬양인지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 엄마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엄마에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힘차게 말씀드릴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성도 유재연처럼 엄마도 성도 이정숙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잘 믿고,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요. / 유재연 성도(중창로공동체)

특별대담_군선교팀과 군종목사와 함께

군복음화를 향하여 돌격!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군선교팀’의 도전

지난 4년,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전도의 황금여장’이라 불리던 군대는 굳게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하면서 닫혀 있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는 멈추지 않아도 된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의 ‘군복음화’라는 그 아름다운 꿈을 실현할 토대가 또다시 마련됐다. 이 좋은 기회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안상현 장로, 김동수 팀장)과 군종 목사들(가광명 소령(공군중앙교회), 김영호 중령(본부교회), 송영광 대위(1방공여단교회), 최명호 대위(경비단교회))이 머리를 맞댔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군선교팀’의 도전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코로나19가 군교회와 군선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중령(이하 김):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병영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부대 방문이 제한되면서 외부 교회와 교류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한순간에 재정, 환경,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 시기 병사들이 군대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개인화가 많이 진행했습니다. 과거에는 병사들이 일과를 마치면 교회에 왔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군대 교회가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아직도 예배 인원이 현저히 적습니다.”

가광명 소령(이하 가): “코로나19로 교회에 나가지 못한 세대들이 입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군교회 공동체 생활을 재개했는데 병사들의 개인 영성이 침체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공군은 간부 구성이 높고, 기지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런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앙생활이 장병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진 게 사실입니다. 병사들을 중심으로 공동체 신앙생활을 재건하려는데 동역자가 없는 게 큰 장애입니다.”

송영광 대위(이하 송): “코로나19가 장병들의 신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신앙을 잘 지키는 장병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군교회는 원점(zero base)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장병들의 신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최명호 대위(이하 최): “제가 부대에 부임하자마자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부임 6개월이 지나서야 예배당에서 장병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코로나19가 이어지는 동안 장병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만나서 삶과 기도제목을 나

누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고 나서도 삶이나 기도제목 나누는 일을 어려워하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대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되고,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군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선교는 궁극적으로 ‘청년 복음화’라는 큰 꿈을 실현하는 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외면하는 청년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군교회의 대책이 있습니까?

김: “요즘 청년들은 너무 바빠서 인생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삶과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군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군대에서마저 예수 만나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군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굉장히 친절해야 합니다. 요즘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군교회에 와서 세례받는 일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대신 청년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군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군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김동수 팀장: “맞습니다. 과거에는 군대 생활하다가 힘들고 외로우면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소연했습니다. 장병들이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 외로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역할을 군교회가 해야 합니다.”

송: “청년들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복음에 있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은 계속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군

대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장병들에게 순전한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최: “청년들이 인생이나 신앙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고독을 느끼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공동체를 찾아줘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공동체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군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군교회에서도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안상현 장로: “이단과 사이비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입대자를 위한 ‘데이빗스쿨’을 개강했습니다. 청년들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생각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군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청년들이 군대에서 사역자이자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김: “법이 개정되면서 소수 종교도 보장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4대 종교가 아니어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단이 정체를 숨기고 계획적으로 군종병이 될 가능성도 큼니다. 실제 장병들끼리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단의 포교였던 적이 있습니다. 늘 유의하고, 깨어 기도하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가: “군교회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

해주신다면 그 콘텐츠를 군교회에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군선교팀과 군종목사님들이 손잡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힘을 보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과거에는 군에서 행사 위주로 장병들을 전도했는데, 요즘은 일대일로 복음을 전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도 장병들과 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들이 건강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역자와 연결까지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장병들이 전역했을 때 교회에서 축하와 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들에게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 “공군에서는 ‘보라매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제대하는 청년을 지역 교회로 보내는 사역입니다. 150개 교회와 연합하다가 코로나19로 중단되었습니다. 더 많은 한국 교회가 제대하는 장병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군선교에 애정을 가져주십시오.”

김동수 팀장: “장병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나도록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대하고 청년 혼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미리 교제하고 교회에 가면 덜 어색할 것입니다.”

송: “저희는 자체적으로 장병들을 위한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 환경, 인력으로 인해서 한계가 많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찬양팀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최: “성경을 바로 알게 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이단이나 사이비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이 사역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상현 장로(군선교팀)



가광명 소령(공군중앙교회)



김영호 중령(본부교회)



송영광 대위(1방공여단교회)



최명호 대위(경비단교회)

맛있는 말씀 해설

“매우 이른 새벽 … 기도하셨습니다”(막 1:35)

한국 교회사에 알려진 공식적인 새벽기도는 김선주 목사로부터 출발했다고 본다. 그가 목사가 된 이후 새벽기도 할 때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가 기도하는 교회로 모여들자 당회의 승인을 얻어 시작한 게 한국 교회 새벽기도의 시작이다. 그러나 개인 새벽기도는 몰라도 새벽예배를 공적인 예배로 제정해서 드리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새벽기도는 농업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고, 새벽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게다가 새벽기도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믿음이 약한 평신도는 어려운 것이라며 아예 선부터 굶는 사람들도 있다. 이로 인해 새벽기도는 좋지만 나만 못한다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반드시 새벽기도를 해야 기도응답이 더 잘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려면 우선 새벽기도와 관련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누군가 새벽기도를 치성을 쌓는 목적으로 다닌다면 이는 잘못된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월의식을 갖는 태도도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한 기도의 본질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체질상 저녁형 인간이어서 새벽기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미리 못을 박아버리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바람직한 기도로 보았을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은 대표적인 새벽기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의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군중 속의 예수님은 쉴 틈 없이 바쁘게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쁜 사역 때문에 끼니를 놓칠 때가 많았고, 잠도 배에서 쪽잠으로

잘 때가 많았다(막 4:38, 6:31).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원칙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다. 예수님은 바깥 수룩 하루의 첫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 내적 교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새벽기도 한다며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지도 않으셨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기도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뜻에 더욱 초점을 맞춰 기도하셨을 뿐이다. 따라서 일각의 사람들이 제기하는 새벽기도 논란과 오해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영혼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자세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스승의 내면적 삶을 모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조지 무러갈이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작은 예수와 같이 새벽기도에 헌신하고 전념한 자들

이었다. 그러나 새벽기도를 경건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다음과 같은 오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새벽기도에 더 큰 은혜가 있고, 새벽기도에서 기도응답이 더 잘되는 것 같고,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더 성숙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즉, 새벽기도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겸손해진다. 새벽기도가 중요한 만큼 겹세마네의 철야기도에도 은혜가 넘치고, 새벽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주기도문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어디에도 임재하신

다고 믿는다. 절망의 순간 특별한 간청기도의 중요성도 알게 된다. 새벽기도를 포함한 다양한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한 가지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공의의 판단이 결여된 유화 정책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딸을 위해서!

5월 15일~5월 21일
〈사무엘하〉 18:16~20:13

묵상포인트 1:

한때 많은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압살롬의 최후는 결국 반역자로 기억된다.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는 범죄는 결국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 행위를 잊은 채 그의

죽음을 깊이 슬퍼한다. 압살롬의 최후를 보며 나는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다윗의 깊은 슬픔이 하나님 공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내전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난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기리도록 기념비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상징이 되고 말았다. 승전 소식을 전하는 이들에게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만 묻는데, 아들의 죽음을 듣자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좋았겠다며 통곡한다.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 승전 분위기가 침울하게 바뀌고 만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 싸운 군사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고 슬픔에만 잠겨 있는 다윗을 질책하며 그

에게 군사들을 위로하고 치하할 것을 요구한다.

묵상포인트 2: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신들이 왕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윗 또한 반역에 동조한 이들의 책임을 묻는 대신 그들의 지지를 얻고자 선부는 관용을 베풀었다.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공의를 베풀어야 할 때와 사랑으로 품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공동체의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압살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한다. 다윗은 압살롬 편에서 서서 반역에 합세한 예루살렘의 유다 장로들에게 연락해 자신을 왕으로 다시 모셔갈 것을 촉구한다. 그들에게 반란의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압살롬 측의 군대 장관(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삼기까지 한다. 이러한 유화 정책에 유다 지파는 다시 다윗을 지지하며 귀환한 그를 맞이한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반란 사건의 잘못을 명확하게 가리지 못한 일시적 유화 정책에 불과했고,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된다.

묵상포인트 3: 다윗은 왕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유화 정책을 펼친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국의 혼란과 분열

이 계속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 공의로운 판단이 결여된 유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묵상하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위기가 찾아온다.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지분 싸움이 일어났다. 이러한 분열은 전쟁이 끝난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진정한 연합을 위해 상벌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결과다.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이양된 것에 불만을 품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유다 지파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압은 다윗이 임명한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이고 군권을 다시 장악해 세바를 뒤쫓는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슬픔과 고통을 당한 때에는 내 감정과 상황에만 집착하기 쉽다. 개인적 감정을 딛고 일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섬겨야 할 지체들을 돌아보자. ▶나는 가정과 일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도자인가? 나의 결정 근거가 인간적 경험과 지식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돌아보자.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습관을 훈련하자. ▶공동체 안에 혼란과 분열이 지속한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 금후와 공의의 균형으로 공동체 안에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생명의 삶〉 편집부

저희 가정이 저의 이혼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학생인 딸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교회에 발길을 끊고, 학교생활도 흐트러졌습니다. 곧잘 하던 공부도 하지 않아서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저와 말 한마디도 섞지 않습니다. 어떡해야 딸의 마음을 위로하고, 딸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어린 딸에게 상처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틀어질 대로 틀어져 버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했고 지금은 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딸은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아빠인 전남편을 만납니다. 아빠를 만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고, 억지로 시간을 보내다 온다고 합니다. 사춘기와 저희의 이혼이 겹쳐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십시오. 저와 전남편의 결혼생활을 보고 자란 딸이 잘못된 연애관, 결혼관을 갖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처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사람으로 크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제게 단허버린 딸의 마음이 열리고, 딸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hha0@onnuri.org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만나주셨다!

“저에게는 남들이 말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신앙체험’이 없습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목사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만남에서 시작된다. 예수님과 만남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한다. 때로는 그 만남을 통해 극적으로 변화되고, 폭발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곤 한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만나고픈 마음이 곧 신실하고 거룩한 갈망이다.

예수님과 만남을 향한 갈망은 믿음에서 발아한 싹이다. 그 만남의 갈망은 굳은 땅을 뚫고 자라난 믿음의 새싹과 같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기에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된 것이다. 아직 꽃 피우지 못했고, 열매 맺지 못했지만 분명 생명력을 가진 갈망이다.

故 하용조 목사님이 믿음을 임신에 비유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다. 여성이 결혼해서 막 임신했을 때는 자신의 몸에 자라는 생명의 시작을 알지 못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몸에서 이전과 다른 현상을 발견하고, 그제야 임신한 것을 알게 된다. 믿음 역시 그렇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엡 4:13).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만남의 갈망이 있다.”

지금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이 자라 풍성한 생명이 될 것이다. 혹여 작은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이 특별한 신앙적 체험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알려주셨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롬 10:9-10).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입술이 될 수 없다.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요 14:6).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았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만남의 갈망이 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날마다 성령의 시선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한다.



최종현 목사
(하늘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독은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묶어매는 매우 강력한 마력이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강력한 충동과 쾌감으로 한 인간의 삶을 쥐고 흔든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벗어나려 해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게 중독이다. 중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알코올이나 니코틴 등의 ‘물질중독’, 성, 도박, 쇼핑 등에서 나타나는 ‘행위중독’이 있다. 중독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나는 언제든 그 행동을 그만둘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위에서 중독 증상이 보이니까 그만두라고 조언해도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 중독에서 회복되는 첫걸음은 자신이 중독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특별한 ‘동기’를 가져야 중독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

담배를 몇십 년 동안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담배는 단순히 흡연행위가 아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수다떨면서 행복감을 누렸던 순간이 흡연의 행위에 담겨있다. 여러 번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에 위안이 되었던 니코틴을 끊으려니가 삶의 바닥에 내쳐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감정과 육체의 힘겨움을 경험했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이 많더라도 강력한 금연에 대한 동기가 주어진다면 금연 시간을 비교적 오래 끌고 갈 수 있다. 그의 마음에서 솟아난 동기는 어린 자녀들이었다. 어린 자녀들

이 자신과 같이 흡연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참을 수 없는 금연의 마음이 들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금연을 이어갈 수 있었다. 부모 된 사람으로 자녀들의 건강과 행동에 위해가 되는 것을 몸소 보인다는 염려가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금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거의 10년 정도 금연을 실천하게 되었다. 스스로 ‘나는 금연에 성공했고,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오랜만에 과거 친구들을 만났다. 그 친구들은 여전히 흡연자였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시 과거의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뿔어져 나오는 연기와 함께 감춰졌던 흡연 갈망을 봉인 해제했다. 10여 년 금연에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 심각하게 흔들리는 자신을 보게 됐다. 여름 장마에 독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당혹감과 무기력감을 느꼈다. 다행히 그 사람은 다시 힘을 내 니코틴을 멀리하고 금연을 유지했다. 금연 동기가 된 것은 자녀들이었고, 개인 신앙의 양심이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금연에 성공한 게 아니다. 다만 보류하고 있다. 금연은 평생에 거치는 과정이다. 한 모금에 그리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외도의 경험도 중독과 비슷한 면이 있다. 어떤 사람이 결혼 이후 우연히 첫사랑을 만났다. 그 사람의 첫사랑은 매우 뜨거운 기억으로 남

아 있었다. 자신은 이미 결혼했지만, 첫사랑을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모든 게 흔들렸다. 자신이 결혼했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함께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도 휘몰아치는 첫사랑의 감정 앞에 희미해졌다. 결국,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고 외도하게 되었다. 양심에 찔림이 없지는 않았지만, 외도에서 경험하는 중독적 쾌락을 멈추는 게 양심을 무디게 했다. 다행히 외도 관계는 오래 진행되지 않고 멈췄지만, 밀려오는 배우자를 향한 죄책감과 십자가 앞에서의 수치감을 지우기 어려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수치감도 무뎠졌다. 외적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도 덕망 있는 모습을 보였다. 고통스럽긴 했지만,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도 거쳤다. 그 사람은 이렇게 자신했다.

“나는 외도의 유혹에서 벗어났다. 이제 외도는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다. 나는 부부의 신의를 지킬 것을 맹세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른 뒤 또다시 외도의 유혹에 심각하게 흔들렸다. 연약함은 인간과 늘 함께한다. 개인마다 취약한 면이 있다. 취약한 면들이 중독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혹은 다양한 행위 중독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 번의 외도에서 멈추지 않고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결혼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의

강력한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니코틴이나 알코올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의존하고 있고 중독된 상태라면 금주, 금연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잠시의 성공, 일시적인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일평생 싸워야 하는 과업이다. 성적으로도 그렇다. 부부는 정절을 지켜야 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강력한 이성의 유혹에서 늘 자신을 지켜야 한다. “나는 정절을 지키는 것에 늘 성공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의 성공은 일시적이고, 아직 성공이라고 단정해서 선포하기에는 이르다. 성경은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 쾌감을 주려는 유혹 앞에 놓여 있는지 돌아보고, 여전히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고전 10:12).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2023 러브소나타 선교 포럼

목회철학 공유 및 러브소나타 비전 재확인

2023 러브소나타 선교 포럼이 지난 5월 8(월)~11(목) 제주 Acts29 훈련센터와 제주항공우주호텔에서 열렸다. 일본 목회자들과 온누리교회 목회철학을 공유하고, 러브소나타 비전을 재확인하는 장(場)이었다. 러브소나타 일본실행위원회, 일본 온누리비전교회, TIM 선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러브소나타 선교 포럼은 개회예배, 선교 포럼, 한국 문화 체험, 폐회예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 ‘온누리교회 목회철학: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김하중 장로(前 주중대사)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기도’,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교역자의 세대교체’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상명령에 순종해 흠어지고, 시대와 문화를 변화시키며, 이방인을 품는 다민족 교회가 되어서 살아있는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하중 장로는 “성령의 지혜



지난 8~11일 열린 러브소나타 선교 포럼에 일본실행위원회, 일본 온누리비전교회, TIM 선교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로 용감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목사는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경험하는 문화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는 노력과 도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카 세츠야 목사(아마가타남부

교회, 아마가타 실행위원)는 “이번 선교 포럼에서 재확인한 비전과 사랑을 일본과 아마가타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나문체 선교사(TIM)는 “선교포럼 강의와 프로그램이 일본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학청년부, ‘가정의 달 블레싱’

5월 28일까지 8개 공동체 18개 팀 참가

대학청년부 ‘가정의 달’ 블레싱이 지난 6일(토) 시작됐다. 5월 28일(일)까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선교사 부모, 이주민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섬긴다. 대학청년부 8개 공동체 18개 팀이 참가한다.

여호수아청년부 파주 은빛공동체, 천사의 집, 남대문5가, 안산M센터, 허그브릿지, 명진들꽃사랑마을, 간

성영세교회, SNS청년부 안산M센터, 우리들학교, 아프간팀, 요셉청년부 포천하랑센터, W청년부 인천동산교회, 갈렙청년부 월만한교회, J4U청년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허브대학부 청운노인복지센터, 하늘대학부 애란원을 찾아가 섬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서빙고 이웃사랑팀 ‘식사를 합시다!’

교회 주변 독거 어르신 54명에게 식사 대접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독거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 지난달 30일(일)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식사를 합시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식사를 합시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외된 독거 어르신들을 서빙고 이웃사랑팀 봉사자들이 찾아가 같이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교회 주변(보광동, 동빙고동, 서빙고동)에 거

주하는 독거 어르신 54명에게 도시락과 외식, 직접 준비한 음식 등을 대접하며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두 명의 어르신이 세례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열매도 있었다.

박순길 장로(서빙고 이웃사랑팀)는 “앞으로도 독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합시다’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3 장로사관학교 수련회

4월 28~29일 양평 블루비스타

‘2023 장로사관학교 수련회’가 지난 4월 28~29일 경기도 양평 블루비스타에서 열렸다. 장로사관학교 수련생(장로장립 후보 집사)과 21장로회(2021년 장립된 장로들의 모임)가 참석했다.

임희창 장로(장로사관학교 담당)는 “다양한 은사를 지닌 21장로회의 섬김 덕분에 하나 되는 장사관수

련회였다”면서 “장로장립 후보 집사들이 남은 장로사관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장로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 장로사관학교는 10월 21일 종강한다. 이후 장로고시를 거쳐 12월 2일(토) 장로장립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NGO 더멋진세상

몰도바 호수복원 준공식 및 의료사역

NGO 더멋진세상이 몰도바 호수복원 준공식 및 의료사역을 주최했다. 지난 5월 4일(목) 몰도바 호수복원 준공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 몰도바 농림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국회의원 올렉 카나투이(Oleg Canatui), 국회의원 게오르게 이킴(Gheorghe Ichim), 혼체슈티 시장, 마을 주민 등 65명이 참석했다.

지난 5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는 몰도바 부데쉬티 및 스테우체니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숙소에서 의료사역을 했다. 현지 의사들과 함께 현지인 포함 난민 220여 명을 진료했다. 의료사역팀이 진료하는 동안 난민들을 위로하는 작은 음악회도 열렸다.

김광동 장로는 “몰도바 호수 복원 사업은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진 자연을 복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호수복원 이후 인근 30만 평 부지 30년 무상 사용권을 획득했다. 그 땅에서 주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한 농업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홍하영 기자

사회선교본부, 이랜드재단과 이웃사랑 실천

겨울 의류 1,052상자, 천사박스 280상자 전달

사회선교본부와 이랜드재단이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다문화가정, 탈북민, 미혼모, 난민,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겨울의류 1,052상자(성인 여성용 587상자, 아동용 465상자), 천사박스(식료품, 생필품 등) 280상자를 후원했다.

이번 이웃사랑 실천은 온누리교회와 이랜드재단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와 이랜드재단은 소외계층 발굴 및 자립을 지원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434, 3436

양재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5월 21일 양재온누리교회 일요 주일 2부 예배 / 대상: 2월 6일~5월 10일까지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강남A 김라미 이은진 박상욱 이 경 서경진 안현경 임주영 설 희 황세미 유재영	강남D 박선만 이정욱 이다혜 문예인 정재훈 백웅선 한세별 박동욱 허 현 한규석	나미영 조경숙 마화성 한상미 이지은 윤 선 임정환 이진신 전혜연 이경희 최승아 민연숙	문영심 강은정 박성연 이인영 박종일 이학일 이석환 오종식 이재우 김중환 하혜란 김지혜 황혜정 조혜숙	송파B 고일미 양미정 권오채 노홍래 김광현 최성학 정종숙 송희자 조영근 윤건상 최정은 최지훈	Bridge33+ 구수경 박영순 김병우 김호영 김보연 이규은 김성배 차순표 모성미 김지은 성재연 지은채 성현준 마영휘 이혜진 정수년 전성호 남윤영 지광진 임근하 최영준 김현진 황명진 김광직	여호수아 김누리 안혜준 김민지 최명아 김유희 김윤필 김은서 김소형 김정연 라종일 김지나 이윤영 김지혜 정선애 김혜승 이시영 문하영 김지연 박민경 강인자 박성진 김재인 서재윤 박경아 오한주 박준석 오혜린 안수연 원유영 정주영 유상훈 박종철 윤채라 이혜경 이은지 이혜승 이주희 강은영 이한동 황진기 이혜빈 이자영 전주호 김태오 정재훈 최태식 정지호 윤원재 조정경 이윤영 홍아영 강지혜 황주혜 고미경	허브 김다정 최인경 박찬일 권형민 신혜리 서수영 이주형 정은정 임예원 장선주	정진우 김정욱 J4U 권하은 유지명 김소영 이숙은 나경주 임경화	박은미 공지혜 조은희 허정아 황민경 최명아		
강남B 김순영 안선희 송미자 박경란 안광진 이인상 안규원 김세나 윤요빈 박선향 이수정 최문아 이영성 이승표 임지영 남동규 최이레 홍주화	강남E 김주희 변애정 김지원 김이경 박성진 윤호일 심예실 오영은 이정은 김순명 정혜원 이지영 차경수 김도희	분당A 김나형 김미선 이경진 김수연 정수화 이기춘 최종란 유정순	서초C 김미옥 황희정 이남경 김해경 이주안 신상만 임미화 김미은	양재A 김정미 채수진 김형범 고영민 박춘란 주은숙	양재B 신영용 이종철 신현용 고귀순 한정화 이옥자	Harmony 최보영 조혜윤	Point5 권정은 문혜자 김아라 진수정 이사훈 박해령 장문영 심수지 조은정 국명정 최종호 유철준	김윤식 목사반 곽일정 권은주 김해경 남선임 석조은 양정환 이강해 이동실 이동철 이문선 이정애 이주성 이진희 임선정 정희 하주영 한승진A	황진수 박동현 장로반 김성윤 김영실 김의석 나미경 민금란 서현지 안병철 이사라 이아브라함 정부는 구서연 김경실 김재원 류지현 안연숙	위성민 이시연 조동욱 목사반 김주미 김정미 오연숙 유수경 이은영 최정숙 강상우 김금혜 김문환 김용희 김원기 김지경 김혜영	박준민 백경숙 송진우 여혜영 예태곤 유단희 윤성희 이교은 이승준 이은아 이인선 임은경 임은정 임흥학 전명희 전진 정혜은 최윤희 홍승연

● 대학청년

갈렙
임혜준 류예경

레바논 아웃리치 후기

허식 순장
(OCC공동체)

수십 년 전 미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물어보면 “전쟁이 있었던 나라, 지금도 위험한 나라”라는 정도의 대답을 듣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에게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대해 동일하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백향목과 함께 자주 나오는 이름,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 헤즈볼라, 뭔가 많이 위험한 나라” 정도로 대답할지 모르겠다.

사실 모두 맞는 말이다. 구약성경에서 레바논이라는 이름은 수십차례나 언급되었을 정도로 성경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다. 5월에도 눈으로 덮여 있는 높이 2814미터의 헬몬산의 웅장함이 생생하게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긴장 관계에 있는 헤즈볼라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것을 수십 년 전 미국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그저 위험한 나라로만 여겨왔던 레바논이 오늘날 중동 선교를 위한 가장 전략적인 지역이 되고 있음을 상상했던 이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는 아랍어를 몰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어와 불어 활용 수준이 높은 곳이다. 상당수 고등교육이 영어와 불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난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공인된 곳이기도 하다. 기독교 마론티파와 이슬람의 시아파, 순니파 등이 정권을 나눠 쥐고 있어서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과 쿠르드 난민과 관련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경륜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는 그동안 6백만 명이 넘는 난민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 약 2백만 명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에 건너와 있다. 그 중 절반 이상은 유엔에 난민으로 등록되지 않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난민들이다. 레바논 인구가 6백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땅에 사는 이 막대한 규모의 시리아 불법 난민들을 향한 레바논인들의 태도가 어떨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레바논에 거주중인 시리아 난민의 대부분은 시골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최하층 노동 인력이 되어 있다. 한 개의 방에 모든 식구가 모여 산다. 비가 오면 사방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불과 몇 개의 공동 화장실로 버티는 실정이다. 이들의 열악한 환경은 마치 1900년대 초 우리가 흑백 사진으로만 봤던 조선 시대 평민들의 삶을 연상시킨다.

가나안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 열악함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시리아를 탈출해 레바논에서 10여 년 동안 불법 난민으로 살아 오면서 많은 난민들이 이슬람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시리아의 힘이 더이상 미치지 않는 레바논에서 그들은 “이슬람은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았고, 돌봐주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마치 1백여 년 전 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을 찾아와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고, 의료선교를 하며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길러냈던 것처럼, 레바논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지금 그와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의 텐트촌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 가정폭력이 일상이었던 곳에서 시리아 여인들을 위로하고 깨우며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조차 힘들었던 중동 땅이었는데, 레바논에서는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곳의 시리아 난민들은 마치 가뭄으로 갈라져 있던 논이 물을 뿜아들이듯 복음의 메시지를 흡수하고 있다. 버려져 있던 아이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앙 교육과 기초교육을 받으며 그 눈빛을 반짝이고 있고, 여인들은 아이들을 따라 나와 주일날 교회에서 수줍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고, 성

경을 공부하며, 그동안 있는 줄도 몰랐던 세상과 신앙의 가치에 눈을 뜨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고, 세례를 받고 있다. 중동 땅에서 말이다.

OCC공동체 레바논 아웃리치팀이 후원 책임 선교지 중 한 곳인 레바논 베카지역을 지난달 방문했다. 임미라 선교사가 운영하는 엘립센터에서는 12세부터 결혼 전까지 시리아 난민 자매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주말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웃리치팀은 임미라 선교사와 시리아 난민촌 가정들을 방문했는데, 이기원 목사님이 세 사람의 난민에게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현장에서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 선교사님이 한 명 한 명 눈물로 뿌려온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함께 감격했다.

레바논의 선교사들은 “더 많은 사람을 보내 달라”, “여기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복음의 열매가 보이기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난민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낡은 중고 차로 수도 없이 많은 난민들을 집으로 교회로 학교로 실어 나르고 있다. 레바논은 날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핍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들을 돌보는 선교사들은 이구동성 이렇게 외친다.

“가나안이 열리고 있다!”

“...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 16:9)

사회적 책임과 관심 그리고 공감



/ 배기선 집사(강서공동체, 온누리아트비전)

캔버스에 녹여낸 노숙인

하던 일을 내려놓고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일하면서 노숙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노숙인을 돕는 실무 경험이 그림 그리는 작가라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했다.

오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대한민국 미술박람회 K-art expo’가 열린다. 나는 이번 K-art expo 미술박람회에서 쪽방촌과 노숙인 같은 취약계층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출품한다.

그림 그리는 일은 늘 영적 전쟁 같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과정은 기도를 쌓아 올리는 시간이다. 그림 하나를 기획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작업하다 보면 나의 기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작업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이뤄낸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고난에 휘말려 들어가는 힘들어한다.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노숙인이 되어 거리를 떠도는 이들도 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사역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다. 하나는 외로움이다. 노숙인 90% 이상이

외롭다고 한다. 어느 모임에서 이 말을 했더니 “우리도 외로워요”라고 하셨다. 우리의 외로움은 웃고 떠들면 없어지지만, 노숙인들의 외로움은 생사를 넘나드는 외로움이다.

또 하나는 2평 남짓한 쪽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죽음이 많다. 누구도 꽃 한 송이 가져와 이별을 아쉬워하지 않는 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들과 함께하려면 사회적 책임과 관심 그리고 공감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과 대한민국 목우전에서 노숙인들의 일상을 담아낸 작품으로 수상했다. 노숙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심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번 K-art expo 미술박람회에서는 노숙인들의 소망과 날개 잃은 천사의 모습을 그림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노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그림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을 불러일으키고 싶다. 작품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웃어줬으면 좋겠다. 나의 경험과 생각이 관객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기를 소망한다. 노숙인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꿈꾼다.

파워임팩트 수료 간증



/ 김기덕 성도(경기A공동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중2병’을 앓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큰딸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던 차에 우연히 파워임팩트 광고를 봤다. 파워임팩트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은 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런데 파워임팩트에 곧바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먹고 사는 일로 바빠서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파워임팩트 광고지가 또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강력한 마음이 들어서 바쁜 일정이었지만 파워임팩트 참가신청을 했다.

파워임팩트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 특히 직업관, 부부관, 인생관, 가정관, 세계관 등을 배우면서 삶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몰입할 수 있었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늘었다. 아내는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함께 배운 부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모녀관계가 더욱 부드러워지고, 개선되고 있다.

아무래도 첫째 딸이 동생들에게 치어 온전히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다. 파워임팩트를 계기로 서로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많이 열었다. 부모자녀관계가 한 뼘 정도 더 자란 것 같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타이밍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부를 파워임팩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내용을 공급해주셨다.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

파워임팩트 강의와 또래들과의 소통, 아웃리치와 성경공부 등을 통해서 아이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사는 게 힘들겠지만,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했다.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더욱 성숙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배우고 알게 된 내용을 삶에서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임을 깨닫고,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하고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낌없는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파워임팩트 목사님과 전도사님, 팀장님, 스테프, 조장님, 감사님들께도 감사하다.

장로칼럼

하나님의 공의와 성경적 경제정의



정운오 장로
(동작공동체)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마 1:15).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

니냐?(미 6:8)”.

이 말씀에서 언급된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의 실천입니다. 그다음에 인자(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히브리어 ‘미슈파트’란 범죄자에게 벌을 내리고, 희생자를 보살피주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전자를 징벌적 정의, 후자를 보상적 정의라 부르는데, 이를 통합해서 ‘교정정의’라 칭합니다. ‘짜데카’는 이웃(회조세계 포함)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기초정의’라 부릅니다. 짜데카는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으며,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고, 이웃과의 경제계를 옮기지 않는 것이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품꾼에게 품삯의 지급을 미루지 않고, 거짓 저울이나 추를 사용하지 않으며,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꾸어주면 올바른 경제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기초정의가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교정정의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기초정의’라 하

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기초정의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먹고사는’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7~18절과 에스겔 18장 5절, 7~8절, 이사야 58장 6~7절 말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은 공의의 실천이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경제적 희생자를 돌보는 일은 반드시 하도록 명령받은 ‘정의사역(justice ministry)’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동체 전체에 평강(shalom)을 가져옵니다(롬 14:17). 공동체적 살움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특히 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 평강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영광, 권리, 포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불공정합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고, 추수할 때 가장자리까지 남김없이 거두지 않으며, 희년이 되면 팔렸던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으로 팔린 자를 놓아주는 은혜를 값없이 베푸는 것이 공의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 (중략) ...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4-5)”.

부채탕감, 이삭줍기, 희년의 명령을 준행하면 가난과 빈부격차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사라지고, 공동체에 살움이 회복돼 하나님의 공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경제성장 속에 국민소득이 늘어나도 가난한 이들이 여전히 많고, 빈부격차가 심화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 때문인지 모릅니다.

권사칼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주희영 권사
(가정사역공동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5월이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를 이야기하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가 14%를 훌쩍 넘은

고령사회이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20~30대 여성이 10%에 미치지도 않고, 설상가상 ‘반드시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20~30대 여성이 10명 중 7명이나 되는 현실이다. 자녀를 21명은 낳아야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한국은 2022년 통계청 자료 기준 0.78명으로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라고 한다. 이러다가는 영국 런던대학교 폴 몰런드라는 인구학 권위자가 말한 ‘한국인의 멸종’이 올 수 있다. 교회에서 유아세례가 사라지고, 장례예배만 남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저출산 관련해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부모의 결혼생활이 행복할수록 자녀들의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면 자신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부모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결혼을 꺼린다고 한다. 부부의 결혼생활 행복이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만으로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 기도만 하지 않는 것처럼,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도 그에 걸맞은 노력이 필요하다. 감정이 없는 차를 운전

하는데도 면허를 따는 것처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 가본 길을 가고 있다. 처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 초보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면 된다. 실수했다고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툭 털고 일어나 도움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지난달 우리 부부는 4주 동안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하가훈) 조장으로 섬겼다. 섬겼다고 하지만 우리 부부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하가훈에 참여한 가정들과 같이 강의를 듣고, 함께 웃고 울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 부부의 싸운 이야기나 실패담을 나눌 때 하가훈 지원자들이 더없이 좋아하고 공감한다.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이 결혼생활이 설계자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A/S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잘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에는 청춘남녀의 결혼을 도와주는 ‘헝가레’, ‘청춘클래스’, ‘결혼문화세미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젊은부부학교’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이혼자를 위한 ‘드림 어게인’, 임신, 출산, 양육을 돕는 ‘헬로맘’, 사별자들을 위한 ‘아베스 모임’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사역이 있다. 다음 달 3일에는 젊은 부부학교가 시작된다. 젊은부부학교는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경험하고,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가정회복 훈련프로그램이다. 이 귀한 자리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도록 돕는 귀한 과정에 바로 당신을 설레는 마음으로 초대한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명대사 “산다는 건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열어서 먹기 전에는 맛을 알 수 없거든”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인 가정의 소중함과 달콤함을 발견하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전진 목사
(SNS청년부)

혀 들어있을 것 같지 않은 평범한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인간은 찾는 존재다.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다. 찾으면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지만, 찾지 못하면 절망하고 좌절한다. 그리스도인 역시 찾는 존재다. 겉보기뿐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다. 홀로 있거

나 누군가와 관계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끊임없이 찾는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미 머리로 알고 입술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치지만, 정작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 답을 찾기 못한 사람처럼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책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말한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걸까?
그리스도인은 믿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다.

보배를 질그릇에 두신 사랑

그런데 왜 우리 삶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나타나기보다 믿음 없는 순종, 순종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질그릇 같은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한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반문하고 회의한다. 때로는 복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부터 피하고 포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끝없이 연약한 우리를 다시 복음을 가진 자로 세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또다시 연약함에 무너지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복음을 가진 자로 세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수 없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예수

기 때문에 내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고후 12:9)라고 고백한 것처럼, 한없이 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매 순간 질그릇처럼 끊임없이 산산조각 깨지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 없는 순종으로, 순종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타협에 타협을 거듭하며 그 타협을 자기합리화하는 연약함 때문에 질그릇이라는 정체성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다시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과 그분의 사랑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

교관 202호, 매일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

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

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

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

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땅 11:00 705호 / 러시아

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 파

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

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마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선교재단 사원 모임

1. 서빙고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자격: 2년제 이상, 기업회계 경력 5년 이상

2. 서빙고총무팀 사원 채용

업무: 노무, 인사관리

자격: 2년제 이상, 엑셀 능자 우대

3. 차량관리팀 사원 채용

업무: 차량유지관리 및 45인승 운행

조건: 1층대형면허 소지자, 관련업무 3년

이상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85회 성령수련회

일시: 5월 20일(토) 9시~17시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접수: 아이스쿨

문의: 02-3215-3533

*서빙고 버스 출발(오전 7시 30분 신동아

쇼핑센터 앞 / 양재 경유)

온누리 패밀리, 사랑 네 컷

일시: 5월 14일(어바이 주일)

장소: 서빙고 이천만광장, 공원

내용: 사랑 네 컷 포토존 운영

양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컴퓨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은우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컴퓨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은우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개그우먼 조혜련, 박미선이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성지순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 유튜브 **CGN** 채널 검색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업로드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